



서울 국제 타이포 비엔날레 공식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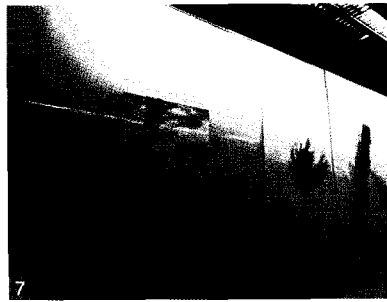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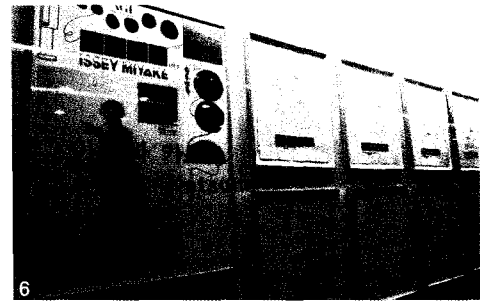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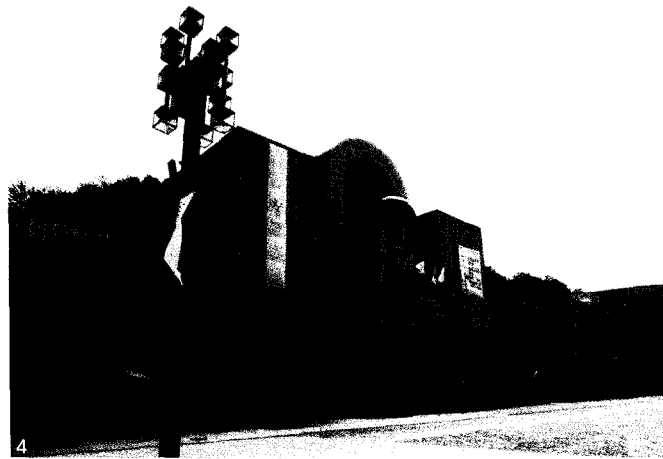
서울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성료 ‘동아시아의 불꽃’ 주제로 문화 교류

한국, 중국, 일본의 작가 107명이 참가한 ‘타이포 잔치 2011: 서울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4일까지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열렸다.

세계 유일의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인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주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정심),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회장 원유홍), 예술의 전당(사장 김장실) 공동 주관으로 ‘동아시아의 불꽃(東亞火花, Fire Flower of East Asia)’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타이포그래피 대표 작가 107명이 전시에 참가했다.

글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

전시는 특별전과 본 전시로 구성되었으며, 특별전에서는 타이포그래피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대표적 작가인 정병규, 최정호(이상 한국), 칸타이쿱, 휘징런, 쉬빙(이상 중국), 아사바 카쓰미, 타나카 잇코, 히라노 코가(이상 일본)의 작품을, 본 전시에서는 동아시아의 다양한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을 구현하는 기성 및 신진 작가 3개국 99명의 작품이 전시됐다.



1. 서울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개전식에 참가한 내빈들
2. 비엔날레를 관람하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3-7. 서울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가 열린 예술의전당 전경

특별전에서 최정호, 타나카 잇코(田中一光, Ikko Tanaka), 쉬빙(徐冰, Xu Bing)이 특히 주목을 받았다.

최정호는 1970년대 일본 사진식자기 제조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작했으며 그동안 일본에서 보 관되고 있던 작품인 한글 서체 '원도'가 이번 전시를 통해 국내에서 최초로 공개됐다. 최정호의 '원도'는 오늘날 한글 디지털 서체의 바탕이 되었으며, 한글 서체의 완성도를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타나카 잇코(田中一光, Ikko Tanaka)는 일본 디자인계뿐만 아니라 세계 그래픽 디자인계에도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이번 전시에서 대표작 '인간과 문자' 등 20점의 작품들이 선보였다. 이번 전시는 1만 2천여점에 이르는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디엔피(DNP)일본문화진흥재단이 타나카 잇코 유족의

동의를 얻어 성사되었으며, 전시 작품들은 한국에 영구 기증된다.

중국의 쉬빙(徐冰, Xu Bing)은 서체 예술의 신기원을 개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세계적인 작가다. 그는 일찍이 대표작인 '천서(天書, Book from Sky)', '지서(地書, Book from Earth)'에서 활자를 이용해 동서양의 경계를 넘는 독특한 창작 세계를 선보여 서구에서 먼저 주목을 받았으며 예술로 승화된 활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병주(한세대 교수) 총감독은 "본 전시가 동아시아 글자 문화에 대한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한글 고유의 창의성과 디자인 유산이 빛을 발하는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작가들의 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8월 29일과 30일 이틀간 '포럼'과 '작가설명회'로 구성된 국제 심포지엄도 진행됐다. 29일 포럼에서는 안상수(홍익대 교수) 국제조직위원장을 비롯하여 원유홍(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장), 하라 켄야(무사시노대 교수) 등이 '동아시아 타이포그래피의 위상과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 특별전 참여 작가



최정호 (1916~1988) / 한국
 원도 활자시대 서체 개발의 양
 대산맥이자 평생을 걸쳐 서체
 연구와 개발에 몰두한 대표적
 인 한글 디자이너이다.
 최정호는 '최정순(崔貞淳,
 1917~)' 과 함께 원도 활자시대
 서체 개발의 양대 산맥이었으
 며, 1950년대 '활자(活字)' 부
 터 1970년대 '사진식자(寫眞

植字)' 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걸쳐 서체 연구와 개발에 몰두한 대표적
 인 한글 디자이너이다.

어릴 때부터 서예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그는 1935년 일본으로 건너
 가 낮에는 도쿄 풍문관(豊文館) 인쇄사 미술부에서 일하고 밤에는 요
 도바시 미술학원에서 수학했으며 그 후 대여섯 군데 인쇄사를 돌아다
 니며 다양한 인쇄 기술을 배웠다. 이때 최정호는 여러 가지 인쇄 공정에
 따라 다양한 기술의 습득이 필요하며, 인쇄가 잘 된다고 해도 글자의
 형태가 아름다워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음을 깨달았다.

원도 제작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계기는 1955년 동아출판사 김상문
 (金相文) 사장이 벤톤 활자 조각기를 도입하면서 최정호에게 한글 원도
 제작을 의뢰하면서부터이다. 그 후 3년에 걸쳐서 연구와 실험을 거듭한 끝
 에 1957년 마침내 '동아출판사체' 가 완성되었다. '동아출판사체' 는 그 미
 려함과 균정함으로 큰 호평을 받아 당시 인쇄, 출판계를 석권했으며 그 후
 삼화인쇄, 보진재 등 다수의 출판사와 인쇄사에서 원도 주문이 쇄도했다.

최정호의 고딕과 명조 구조도

최정호의 고딕과 명조 구조도

1970년대에 이르러 일본의 사진식자기 제조사 모리사와(モリサワ)와
 샤켄(写研)으로부터 사진식자용 원도 제작을 의뢰받았으며 두 회사의
 사진식자기가 국내에 널리 공급되면서 최정호의 서체도 널리 쓰이게 되
 었다. 그의 업적 중에서도 최정호의 '사진식자체' 는 '동아출판사체' 에
 버금가는 중요한 활동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그 이전의 활자가 가지

고 있었던 세로쓰기 균형을 탈피하고 가로쓰기에 맞
 춘 새로운 균형의 한글을 그려냈기 때문이다.

그의 '사진식자체' 는 한글 서체의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오늘날에 이르러
 서도 많은 서체회사들이 그의 원도를 바탕으로 하여
 디자인을 하고 있다.

쉬빙(Xu Bing) /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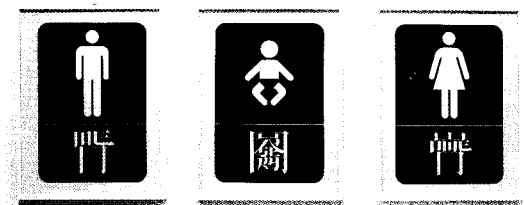


오쿠이 엔벤조(Okwui
 Enwezor)는 쉬빙을
 문화의 경계선을 넘어
 동서 문화를 상호전환
 하고 시각언어로 그의
 사상과 현실문제를 표
 현하는 예술가라고 말
 했다.

쉬빙은 채국강(蔡国
 强 Cai Guoqiang),
 구원다(谷文达 Gu Wenda), 황용핑(永砮 Huang
 Yongping)과 함께 중국 당대예술의 '4대금강' 으로
 불리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천서(天书 1987)>, <신영문서법
 (新英文书法)>, <지서(地书)> 2006, <WHERE
 DOES THE DUST ITSELF COLLECT(何处惹尘
 埃)>2004, <봉황(凤凰)>2010, <배후의 이야기(背
 后的故事)>2011 등이 있다.

1988년 36세의 쉬빙은 다년간에 걸쳐서 중국 문자
 의 해체작업을 통해 국내외의 당대 예술계에서 광범위
 한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된 대표작 <天書, Book
 from Sky>를 완성하였다. 1990년 미국으로 이주한
 쉬빙은 <新英文方块字>로 미국 문화계의 최고상
 MacArthur Award을 수여받았다. 이 작품은 한자와
 영문알파벳을 융합한 것으로 서구에서 큰 반향을 일
 으켰다. <天書>를 발표하고 15년 후인 2003년 발표
 한 <地書, Book from Earth>를 발표했다.



쉬빙의 '남, 유, 여 men, nursery, women' 1998

〈天書〉가 아무도 읽지 못하는 문자라면 〈地書〉(구나 알아보는 부호)를 국제언어로 창작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의 20년 예술탐색과정에서 문자에 대한 사고는 늘 창작의 원천이었으며, 이는 중국인으로서의 문자에 대한 철학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에 대해 쉬빙은 “중국인은 문자와 또는 문자사이 관계에 대해 경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 문자의 개조로 사람의 사유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개조하는데까지 도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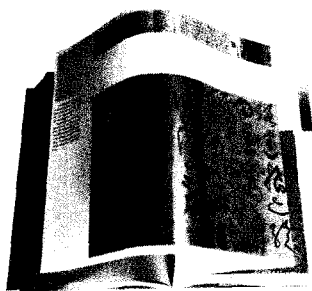
뤼징런(Lv Jingren) / 중국



중국 북디자인에 50년 동안 영향을 미칠 디자이너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세계적인 북디자이너다. 그의 디자인 정신은 과거의 전통만을 그대로 따르지 않으며 동양의 풍취를 충분히 스며들도록 하고, 서양을 따르지 않

으면서도 시대정신을 드러내는 것이 특징이다.

저작 및 주요논문으로는 <4인이 말하는 북디자인>, <징런 북디자인>, <징런 북디자인 2호>, <장정에서 북디자인으로>, <북디자인의 성공(星空)에서 회유하다>, <중국 당대 북디자인/뒤집다>, <북디자인의 도(道)에 관하여>, <뤼징런 북디자인 교과서>, <책의 놀이-중국 현대 북 디자이너 40인> 등이 있다.



뤼징런의 '중국의 기억-5000년 문명 보배'

타나카 잇코 (Tanaka Ikko) (1930~2002) / 일본
60~90년대 일본의 그래픽디자인의 전성기를 이끌며, 일본의 그래픽디자인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끌었던 디자이너다.



타나카 잇코의 '인간과 문자-한국' 1995

아사바 카쓰미(Asaba Katsumi) / 일본

문자의 기원을 찾아가는 문자탐험가, 끝없이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디자이너다.

70세가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광고와 그래픽디자인뿐만 아니라 방송, 영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작업으로는 민주당 로고, 나가노 동계올림픽 포스터 등이 있으며 도쿄타이프디렉터스클럽(TDC)을 설립하여 매년 세계적인 타이포그래피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일본이 가진 단순하고 절제된 조형적 특징과 몸에 밴 장인적인 기질이 담긴 디자인 작품들을 2천여점 이상 발표하면서, 2002년 74세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왕성한 활동으로 일본디자이너들의 멘토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듬해 건축가 안도다다오 등 일본 문화계의 중심인물들이 참여해 대규모 추모전시회를 기획할 정도로 일본 디자인계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다.

작품은 일찍부터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1994년에 자수포장(紫綬褒章)을 받았고 같은 해에 뉴욕 아트디렉터스클럽 전당에 입성했다. 만년에는 2000년에 문화공로자, 도쿄아트디렉터스클럽 명예전당 입성 등 2002년에 급사하기 전까지 일본 그래픽디자인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이세이 미야케 등과 함께 일본 동북지역 지진피해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여러가지 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동아시아 문자 중에서도 중국에 전해져 오는 상형문자 '동파문자(東巴文)'에 조예가 깊다. ☺

아사바 카쓰미의 'AGI 포르투갈 마인드 맵' 2010